

SPOT



가슴속 잠자던 본능이
눈뜰 때

랠리에서 — 일상으로,
벨로스터 N.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계기판의 숫자보다 심장박동으로 측정되는 짜릿함을 아는, 그런 이들을 위한 벨로스터 N의 대단한 등장, 대범한 대시, 호기심, 모험, 도전, 개성, 특별함을 지문처럼 갖고 태어난 이들의 사전에 새롭게 등재될 매력적인 단어, 벨로스터 N의 모든 것.

Editor — 박은수, 장필근 Photo — 허동욱 플라그리주얼엔 스튜디오



벨로스터 N 퍼포먼스 블루

폭발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2.0 T-GDi 엔진

벨로스터 N은 275마력의 고성능 전용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터보 노즐 면적을 증대시키고 압축비를 낮춰 성능을 극대화했고, 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노킹 현상을 줄이고 내구성은 높였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에 날아와 꽃힌 푸른 탄환.
운전자의 의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바람과 노면의 저항, 관성이란 물리 역학을
날날이 계산해 극복한 벨로스터 N과 하나 되어
달리는 길.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길이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되는 특별함을 경험하라.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스포츠 스티어링 휠

레이서처럼 변속하는 스킬, 파워풀한 레브매칭

변속 시 RPM을 동기화하는 레브매칭(Rev-Matching) 시스템은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이내믹한 변속감을 전달한다. 프로 레이서처럼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던 빠른 코너링의 짜릿함을 별도의 조작 없이도 레브매칭 시스템이 선사해준다.

어디서든 서킷같은 출발, 런치 콘트롤

빠른 제로백은 스피드 마니아들의 로망. 벨로스터 N의 런치 콘트롤(Launch Control)은 정지 상태에서 최대의 힘으로 출발하도록 돕는다. 클러치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구현되는 벨로스터 N의 런치 콘트롤은 고성능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심장을 뛰게 하는 우렁찬 배기음, 능동가변배기

스포티한 디자인도, 웅장한 휠도 고성능차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앞서 가던 사람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배기음이야말로 운전자의 심장을 뛰게 한다. 주행 모드에 따라 서로 다른 배기음이 나는 벨로스터 N의 비밀은 능동가변배기 시스템이 담당하는데, 정속하고 싶을 때도 가속 의지를 자극하고 싶을 때도 효과적이다.



N 전용 6단 수동 변속기



“예를 들어 F1 레이서가 있다고 해. 그 레이서가 지금 너와 똑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 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겠니? 코너를 보고 어디서 브레이킹을 하고 어느 라인에서 코너를 빠져나갈지를 늘 상상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 고민거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해 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_ 무라카미 류의 소설 <달빛의 강> 중에서

*일본 대중문학에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무라카미 류는 모터스포츠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모터스포츠에 대해 스스로 '서킷을 전전했다'고 할 만큼 F1, 르망 24시간 레이스와 WRC를 수십 차례 관전하고 즐겼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주행코스인
뉘르부르크링에서의 기억을 각인한 차.
WRC 랠리에서 얻은 뜨겁고 치열했던 경험이
투영된 차. 뛰어난 주행성능을 바탕으로
레이스 트랙에서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본연의
재미를 일상에서 구현해주는 벨로스터 N의
자랑스러운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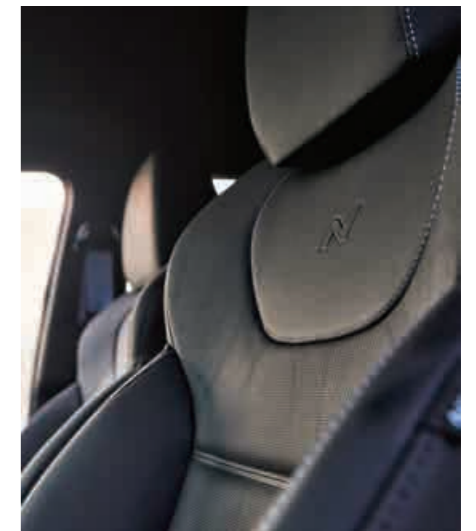
디자인으로 이룬 고성능

벨로스터 N은 외관부터 내장까지 언제나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고성능 디자인의 진수. 유광 블랙 컬러의 와이드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개를 펼친 듯한 에어커튼, 붉디붉은 스플리터가 뿜내는 고성능 모델의 존재감은 단지 시각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커다란 그릴은 보다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냉각 성능을 높이고, 칼로 도려낸 듯 선명한 에어커튼과 스플리터는 공기 저항을 낮춰 도로 위에 밀착하듯 달리는 재미를 선사한다. 사이드 스커트가 와이드하고, 윙 타입 2단 리어 스포일러와 4개의 커다란 에어핀이 달린 리어 디퓨저가 공격적인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차체를 타고 흐르는 공기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벨로스터 N의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은 바람을 지배하며 '편 투 드라이브'라는 과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간다.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마음껏 가속할 때도 과감하게 변속할 때도 운전자의 의지를 단단히 지탱해줄 버킷 시트를 비롯, 그림감이 남다른 스티어링 휠, 정확한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일단 쥐고 조종해보고 싶은 N 전용 6단 수동 변속기 등 눈길, 손길 닿는 곳마다 질주본능을 자극하는 직관적인 디자인이 가득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스포티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 디자인과 기능성,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지 말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도 기능이란 사실을 명심할 것. 스타일 그 자체가 기능이 된다는 것을 벨로스터 N이 증명한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직 않았고, 더 좋은 드라이빙은
이 길을 돌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기대.
벨로스터 N에 몸을 싣고 출발하기 전마다 치르는
경건하고 가슴 부푸는 의식에 당신의 맛있는 일상은
순식간에 짜릿한 행복으로 전환할지니.